

임계등장

LG產電(株), 차단기/개폐기 CE마크 취득

LG產電(株)(代表：李鍾秀)가 배선용 차단기와 전자 개폐기에 대해 유럽 공동체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제조 업체로서 최초의 일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됨은 물론 국내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CE 마크를 부착하고 유럽 시장에 진출할 LG산전의 제품은 배선용 차단기 14종, 초소형 배선용 차단기 16종, 전자접촉기 16종, 과부하계전기 10종 등 총 56종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유럽 지역의 경우 CE 마크 취득이 법적 규제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E 마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LG산전의 배선용 차단기와 전자 개폐기

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전기위원회(IEC)의 규격을 만족하고 있으며, 독일의 우수한 기술 검사협회의 참관 시험과 인증을 받아 국제적인 공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편 전자식 배선용 차단기는 전력을 받아서 각각의 부하에 맞게 나눠주는 배전반의 핵심 부품으로 과부하가 걸릴 때 전력을 끊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전자접촉기와 과부하계전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전자 개폐기는 외부로부터의 신호에 따라 전력을 끊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LG산전은 이번 CE 마크 획득을 계기로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해 2000년까지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장성마크 취득도 추진 중에 있다.

(株)光明制御, 중국에 합자회사 설립

자동제어시스템 전문업체인 (株)光明制御(代表：韓喆愚)는 “중국북경용진기술개발중

심”과 합자회사설립에 합의하고 중국 북경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합자회사의 명칭은

“북경송성공제공정유한공사”(이하 송성공사)로 양측이 50 : 50으로 투자해 변전소 종합보호제어시스템, 공정제어시스템 등을 생산해 중국현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송성공사는 광명제어의 제어시스템에 대한 기술과 경험 그리고 북경용진기술개발중심측의 풍부한 인력과 시장개척경험이 결합되어 초기단계에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주력하면서 1999년에는 18,000만원(인민폐), 2008년에는 50,000만원(인민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제어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서 ROYALTY를 받게된다.

합자회사의 설립으로 광명제어는 중국의 풍부한 고급인력과 생산 및 영업기반을 확보

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및 독일 MAKER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동북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을 중심으로 전력제어뿐만 아니라 공정제어시스템 분야까지 응용분야를 확대하여 시장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매년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는 광명제어는 분산제어시스템(DCS), SCADA시스템, TM/TC시스템, 전력·조명감시제어시스템 등을 자체개발하여 한국전력, 철도청, 수자원공사등의 국가기간 시설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는 기술력이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大成電線(株), 탄자니아 TCL 국영 전선社 인수

大成電線(株)(代表: 梁始伯)가 탄자니아 국영 전선회사인 TCL社를 인수, 국내 동종 업계로는 최초로 아프리카에 진출했다.

탄자니아 현지 PSRC(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있는 인수 계약식을 통해 梁始伯 사장은 TCL사 지분 2백70만달러 가운데 대성전선이 51%(1백37만3천달러)를 확보, 경영권을 넘겨받고 TDFL(탄자니아 개발 금융회사) 24%, 탄자니아정부 15%, TANESCO(탄자니아 전력청)가 10%의 지분을 취득했

다고 알려졌다.

TCL사는 탄자니아 국영 중·저압류 전력케이블 공장으로 현재 동량기준 월 2백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대성측은 이번 인수로 향후 7년내에 1천2백50만 달러를 신규 투자, 특고압케이블 및 통신케이블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성측은 이와함께 이같은 진출은 탄자니아 다루셀렘항구가 우간다, 짐바부웨, 모잠비크, 자이레등 주변국 중심에 있어 아프리

카 시장 점유에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梁사장은 TCL사 투자 배경에 대해 「이 나라는 韓國에 비해 국토는 10배나 크지만 전력량은 5분의 1수준으로 인구 4천만 중에 8%만이 전기 혜택을 받고 있고 통신망은 더욱 형편 없다」고 밝히고 탄자니아 전력청등

당사국의 강력한 협조가 뒷받침되고 있는 입 장이어서 수요공급에는 밝은 편으로 전망했 다.

한편 대성전선은 이번 탄자니아 진출로 베 트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 4번째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이색적인 기록을 남겼다.

LG電線(株), 비금속 防彈 광케이블 개발

LG電線(株)(代表：權炆久)가 최근 국내 에서는 처음으로 총탄에 맞아도 손상을 입지 않는 非金屬 防彈 광케이블을 개발했다.

비금속 방탄 광케이블은 조류사냥, 수렵활 동 등에 따른 총탄에 의한 케이블 피해 사고 가 잇따르고 있어 총탄에도 손상되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CATV용 전송망이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 축에 따른 광케이블 가입자망이 확대되고 있 어 국내에도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 케이블은 중앙의 철선 및 철테이프 외 장 대신 FRP(강화유리섬유)나 특수소재 아 라미드실을 사용해 금속외장형 케이블보다 가벼워 철탑이나 전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 어 가공(架空)용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비금속형 케이블은 송·배전선 과의 접촉 사고에도 안전할 뿐 아니라 낙뢰 에 의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며 금속의 부 식에 따른 케이블의 열화 위험성이 없어 가 공케이블의 핵심 요소인 장기 신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LG전선측은 설명했다.

LG전선은 또 비금속 방탄 광케이블이 원 래 동남아나 남미 등 수렵이 일반화 돼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전략 품목으로 개발됐으나 별도의 지지선 없이 철탑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자기지지형 케이블로 포설과 운용이 용이해 산악 지역이 많은 국내 가공 용 광케이블로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